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오늘 개봉작 3편의 주제는?

# 역사가 된 인물들 영화가 되어 돌아온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역사와 전설이 된 인물들, 영화가 되어 돌아오다'를 주제로 3편의 영화를 엮어 25일 개봉·상영한다.

영화는 지지를 2% 끌어 후보가 대선 후보 1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노무현입니다>, 칠레의 정치가이자 민중운동가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파블로 네루다와 그를 쫓는 비밀경찰의 이야기(네루다), 소비에트와 중앙아시아 최고의 예술극장인 '고려극장' 두 디바의 삶을 그린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7' 선정작으로 영화제 기간 월드프리미어로 공개된 <노무현입니다>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정당 최초로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며 정계에 파란을 일으킨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는 '사이에서' 길 위에서 '목숨'을 통해 사람을 향한 깊이 있는 시선과 남다

**'노무현입니다'**  
노 전 대통령 대선후보시절 기록

**'네루다'**  
칠레 민중운동가인 네루다  
그를 쫓는 비밀경찰의 이야기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  
중앙아시아 최고의 예술극장  
'고려극장' 소속 예술인들의 삶

른 연출력을 선보인 이창재 감독의 네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로,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당시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적으로 떠올랐다.

노무현과 함께했거나 그를 기억하는 39명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인 노무현이 아



'노무현입니다' 포스터



'네루다' 포스터

닌 '사람' 노무현의 이야기를 담은 <노무현입니다>는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300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스케이프: 마스터즈' 섹션 상영작 <네루다>는 도망자가 된 위대한 시인 네루다와 그를 쫓는 비밀경찰 오스카가 쫓고 쫓기는 과정 중에 서로를 의식하면서 매료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전작 '재기'를 연출하며 세계 평단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파블로 라리인 감독의 신작으로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연출로 찬사를 받고 있다. 또한 네루다를 쫓는 비밀경찰 오스카역을 멕시코의 국민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

맡아 열연을 펼쳤다.

한국국제영화제 감독 추간 초청을 비롯해 전 세계 20여 개 영화제 최우수작품상과 최우수외국어영화상에 노미네이트되며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는 평론가이자 학자로 활동 중인 김소영 감독의 신작으로, 중앙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고려인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친 '고려극장' 소속 방 타미라와 이합덕의 삶과 예술적 성취 그리고 1980년대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을 조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 참조. 일반 5,000원, 후원회원 4,000원.

/정해은 기자



## 심술긋고 못된 '놀부' 한옥마을서 웃음 선사

'놀부가 됐다!'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전주시·전주문화재단의 한옥마을 평일상설공연 기획 시리즈, '놀부가 됐다!'가 25일 오후 8시 첫 선을 보인다.

지난해에는 뮤지컬·한국무용·비보이·국악·연극 등 각 분야의 7개 문화예술단체가 상설무대를 통해 릴레이로 공연을 선보였다면, 올해는 전주의 이미지와 콘텐츠를 담은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극은 전주한옥마을에서 필히 둘러봐야 하는 장소들을 대사 속에 담아 관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 돈을 벌기 위해 한옥마을에서 일하는 흥부, 전주시 세무사할을 당하고 특검을 받는 놀부 등 엉뚱하고 재미있는 설정으로 해학과 웃음을 전달하고자 했다.

놀이극 '놀부가 됐다!'는 퍼포먼스가 중심이지만 가·무·악을 기본으로 한 전통예술을 융합시킴으로써 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비보이 그룹 '소울헌터즈',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사할 '금과무용단', 신명을 풀이할 입실필봉농악 등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보인다.

공연 관계자는 "공연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평일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자 기획됐다"며 "독특한 개성의 캐릭터들이 선사하는 공연을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공연은 오는 9월15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저녁 8시에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펼쳐진다. 티켓은 일반 1만5000원, 미취학 5000원. /정해은 기자

### 젊은 안무자 창작 출판 경연대회

## 'Day dream' 양홍서, 대상·안무상 동시 수상

지난 22일 열린 '2017젊은 안무자 창작 출판' 경연대회에서 안무자 양홍서가 'Day dream'로 대상(전북도 도지사상)과 안무상(한국무용협회 이사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사)한국무용협회 전북도지회(지회장 영광욱)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무용 1팀, 현대무용 5팀, 발레 3팀 등 총 9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또 최우수상(정음시상)은 김동우·주해리 씨가, 연기상(전주시의장상)은 주해리 무용단의 홍서빈·안지수·홍자연 단원이 각각 차지했다.

이경호 심사위원장(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은 심사평에서 "작년보다 작품성이 좋았다"며 이에 더해 "작품 안무 시, 좀 더 철저한 준비성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를 졸업한 안무자 양홍서는 동대학 무용원 실기과 예술전신사에 재학 중이다. 한국현대무용협회 전국 무용 콩쿠르 현대무용 대학부 남자부문 금상, 한국무용협회고양시지부 전국 무용 콩쿠르 현대무용 대학부 금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무용협회 고양시지부 이사와 고양시안무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문화비평 아카데미 참여자 20명 모집

전북문화재단, 내달 2일까지

전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문화예술분야의 문화비평 및 공연 등에 관심 있는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비평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017청년문화예술대학 문예창작'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6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9시에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문화예술 4개 분야(공연예술·시각예술·영상예술·미디어아트)에 대한 현장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화비평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강사진으로는 공연기획자, 교수, 기자, 평론가 등 전문가가 함께 한다.

모집기간은 24일부터 6월 2일 오후 12시까지며, 수강생은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ct.or.kr](http://www.jct.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명작 단편소설 재구성한 뮤지컬 '쿵쾅', 군산청소년예술제 찾는다

27일 군산 예술의전당서

명작 단편소설의 아름다운 변신,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뮤지컬 '쿵쾅'이 제22회 군산청소년예술제를 찾는다.

(사)한국예총군산지회(회장 황대욱)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후원하는 제22회 군산 청소년예술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뮤지컬은 오는 27일 오후 5시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약 70분의 러닝타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 '동백꽃', '운수 좋은 날' 등을 각 단편소설들의 시대적 배경인 1930~50년대의 노래들로 작품 색깔과 어우러지도록 편곡하여 뮤지컬로 풀어낸 작품.

지난해 2월 첫 선을 보였던 쇼케이스 공연과 지난해 5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초청 공연 또한 전석 매진과 함께 공연

을 확정하는 등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청소년 및 시민들을 무료로 초대한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은 단편소설이 그려낸 아름다운 문학적 색채를 최대한 살려 사랑이라는 보편적 메시지와 그 안에 담겨있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무대에 펼쳐낼 예정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람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 '미인도' 항고 기각... 유족측 "정치검찰이 저질러"

지난 23일 서울 고등검찰청이 '미인도 사건' 검찰 항고 사건에 '기각' 결정 통지한 것과 관련, 유족측이 "성의 없는 항고사건의 처리는 그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워낙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서울 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은 재정 신청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기각 통지서를 보낸 고등검찰청을 비판했다.

공동변호인단은 "미인도 사건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으로 차체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동 변호인단중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발표한 자리에 우병무의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노승권 차장 검사가 참석했다"면서 "미인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와 직권남용 형태의 횡포, 그리고 미인도 사건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으로 차체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바쁘고 지친 일상은 잠시 뒤로하고  
별빛이 수놓인 밤하늘을 스크린 삼아

#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6.2. - 6.6.**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Festival Friend 류현경